



Grace before the meal(1927), Evert Pieters,
Bourne Gallery.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 18,20)

■ 미사전례

- 제 1독서: 에제 33,7-9
-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제 2독서: 로마 13,8-10
- 복음 환호송: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말기셨네. ◎
- 복음: 마태 18,15-20

■ 미사시간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8:00
오전 10:00(영어)
오후 12:00(교중미사)
- 평일미사: 화 · 수 ·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화답송: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프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영성적 삶으로의 초대] 영성이란 무엇인가 4

지난주에 언급한 가톨릭 영성 네 가지 중, '근본적 영성'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이는 말 그대로 가장 근본이 되는, 변하지 않는 영성이다. 근본적 영성은 영성생활의 출발이고 마침이다. 아브라함과 모세, 예언자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보여주신 근본이 되는 영성, 이것이 바로 근본적 영성이다. 이런 근본적 영성에는 무엇이 있을까. 믿음, 희망, 사랑, 청빈, 정결, 순명, 은총, 기도 등을 들 수 있다. 이 근본적 영성의 종결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다. 따라서 구약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근본적 영성의 완성은 예수님에 의해 이뤄진다. 예수님은 실제로 근본적 영성을 철저히 실천하는 삶을 사셨다. 늘 아버지와 합치되어 있었고, 아버지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속에서 사셨다. 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은총 안에서 공생활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받고 걸어가야 할 근본적 영성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이러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신덕),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희망으로(망덕), 그리스도와 세상을 사랑(애덕)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나의 희망이 아니라, 하느님의 희망이다. 또 사랑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해야 한다. 영성생활에서는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분별해야 한다. 내가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북한 동포에 대한 애덕을 나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신 것이다.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은총은 이미 충분히 나에게 와 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미 나에게 은총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정진(기도)하는 것이 바로 근본적 영성이다.

여기에 좀 더 덧붙이자면, 근본적 영성에는 '청빈' '정결' '순명'도 함께 포함된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진정한 청빈과 정결, 순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삶은 선택된 몇 명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다. 그래서 근본적 영성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본적 영성(믿음, 희망, 사랑, 청빈, 정결, 순명, 기도, 은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휴식, 침묵, 명상, 성실함이 필요하다.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다.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이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이라면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창조된 인간은 침묵할 때 진정한 영적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심통 난 곰처럼 입 튀어나온 모습으로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의 침묵은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내적 침묵이다. 침묵을 실천하는 이의 얼굴에선 빛이 난다. 침묵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 눈을 쉬어야 하고, 입을 쉬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휴식은 반드시 산 속으로 들어가는, 낚시터에 가는 그런 휴식이 아니다.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 푸는 그런 자기중심적 휴식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지하철에서도, 시장에서도, 러시아워 도로 위에서도 휴식과 침묵을 지킬 수 있다. 영성생활의 전제조건이 바로 이 휴식과 침묵이다.

이러한 휴식과 침묵 속에서 성실하게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적 영성이다. 이것이 영성생활의 기본 중에서 기본이다. 근본적 영성에 대한 성취 혹은 갈망 없이 영성생활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최근 '보통 남자'와 사랑하고 싶다는 내용의 가사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여가수의 노래가 있다. 이미 결혼한 40대 50대 주부라면 다 안다. 그게 쉬운 일인가. 영성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 근본적 영성을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본, 보통, 평균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은 지키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넘본다. 그게 문제다. <가톨릭신문 제2753호 (2011년 7월 3일) -정영식 신부 (효명고등학교 교장)>

주임신부 : 양태현(그레고리오) ☎323-828-7482 / 보좌신부 : 정재덕(안토니오) ☎323-493-2727 / 종신부제 : 예영해(프란치스코) ☎213-249-2127

성삼 소식

LA교구 2차 헌금

- 오늘 미사 중에는 LA교구 2차 헌금있습니다.
(Cardinal McIntyre Fund for Charity)

새 영세자 소식

- 세례식: 9월 20일(주일) 오전 11:20
- “영적 선물 봉헌서”는 9월 13일(일)까지.
※세례 준비자 명단 (명)

이름	세례명	구역반	이름	세례명	구역반
최현수	다윗	1/3	이혜인	릴리안	3/3
김주미	율리아나	1/3	장지영	체칠리아	4/2
성지영	스텔라	1/1	장인숙	엘라	3/3
윤숙현	리디아	4/4	한경진	제노	4/3

교무금 및 헌금 납부 방법

1. Check 우편발송

- Payable to: Sung Sam Korean Catholic Center
(S.S.K.C.C 약자로 쓰셔도 됩니다.)
- 주소: 1230 N. San Fernando Rd. LA, CA 90065

2. 은행자동이체

- 은행이름: Bank of Hope
- 예금주: Sung Sam Korean Catholic Center
- Routing #122041235 / Account#0007316194

YouTube 생방송 미사

- 일시: 매주일 오전 10:00 영어미사
- 검색이름: 성삼 한인 천주교회(Sung Sam KCC)

주일학교 개학 및 등록

- 수업방법: 온라인 수업(Zoom)
- 대상: 1학년-12학년
- 등록: 오전 10:00 영어미사 후.

<https://forms.gle/TzYpp4HaWXcJxyCv9>

(성삼 웹사이트에서도 링크로 등록 가능합니다.)

- 개학일시: 9월 13일(주일), 반별 시작 시간은 추후공지
- 등록비: 없음.
- 문의: 이경란(젬마) ☎213-273-6797

성삼 한국 학교 2020년 1학기 학생 모집

- 가을 학기: 8월 29일(토) ~ 2021년 1월 30일(토)
- 수업방법: 온라인수업(Zoom)
- 수업시간: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2:30
- 대상: 유치부~12학년, SAT반.
- 수업료: 한자녀 \$175. 두자녀 \$300. 세자녀 \$425.
- 문의: 김 네온 수녀님 ☎323-828-8876
박미향(안토니아) ☎213-507-1802

우리들의 정성 (2020. 8. 30 현재)

교 무 금	\$5,720.00	교무금(21명) 김용재, 김주식, 김진정, 김천애, 김탁제, 박흥기, 예영해, 우인주, 이영희 이정영, 이추강, 이태종, 이호제, 장경구, 정종문, 정현식, 천부영, 최 호 태윤주, 한재춘, 허관수, 감사헌금(4명) 김천희, 이석환, 한재춘, 익명 성소후원금(9명)
주일헌금	\$1,111.00	
감사헌금	\$350.00	
광고비	\$150.00	
성소 후원금	\$22.00	

본당살림

「순교자 성월」

한국 교회는 해마다 구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고 있다. 순교란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치는 행위이다. 순교자들은 하느님과 하늘 나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지키고자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를 받아들였다. 이 구월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순교 성인 103위를 비롯한 순교 복자 124위 등 수많은 순교자의 굳센 믿음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때이다.

한국 교회의 순교자 성월은 1925년 로마에서 거행된 ‘조선 순교자 79위 시복식’이 계기가 되었다. 한국 교회는 이듬해부터 9월 26일을 ‘한국 치명 복자 79위 침례’(축일)로 지냈는데, 이날이 기해박해(1839년)와 병오박해(1846년) 때 순교한 79위 복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가 순교한 날이기 때문이다. 1968년에는 병인박해(1866년)의 순교자 24위가 시복되었다. 1984년 5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방한하여 이들 103위 복자를 시성하였다. 또한 올해 8월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찾아, 순교자들 가운데 103위 성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순교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지역에서 현양되던 124위를 시복하였다.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복자 성월’을 선포하지는 않았으나 1925년의 79위 시복 이후로 복자들을 현양하고 공경하는 신심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구월 한 달을 복자 성월로 지내게 되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984년 103위의 시성에 맞추어 복자 성월을 ‘순교자 성월’로 바꾸고, 9월 20일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경축하고 있다.

순교자들은 평소 하느님을 체험하며 살았기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 오늘날은 피를 흘리며 신앙을 증언하는 시대가 아니지만, 선조들의 순교 영성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는가?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 내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그 첫걸음일 것이다.



고려 여행사 3388 W. 8 th St. LA CA 90005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패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패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예옥)	백양 · 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턴 백화점(9가+웨스턴) 서 엘리사벳 213-487-7676
Fire Way Fire Protection 소화기 점검해드립니다. 김항철(요셉) 213-352-3554 김 호노리나 213-200-3049 EE#25138	건강보험(커버드CA), 메디칼-메디케어, 생명보험(Life), 연금(IRA), 무료상담 213-249-2121 예영해(프란치스코)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에실) ☎213-500-9393	Immanuel Dumplings 임마누엘 만두 고기, 김치, 낙지, 고기&김치, 프로 베이 만두. 이경은(소화테레사) ☎323-636-2577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보철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어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희(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 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36년 전통의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323-734-5656(L.A.) 562-868-0788(세리토스/놀웁)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시니어 HMO 지정점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무 특별 봉사)	미주 자동차 정비 MIJU AUTO REPAIR & BODY 415 W. Broadway, Glendale (818)247-4400 이 크리스티나 & Karl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 곳은 뚫어드리고 뚫린 곳은 막어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내과/노인 의학과 213-674-7758 2727 W. Olympic Blvd. Suite 309 LA, CA 90006 한남체인 건너편 이전개원	광고주를 기다립니다.	구 본옥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84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플라자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어 김 . M. E. 21씩
수녀님 참기름 멕시코 농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참기름 주문전화: 213-220-1711 kakaotalk ID: puracollective www.puracollective.com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두드림 종합 보험(주) 대표: 제임스 양(야고보) 생명/은퇴연금/로템케어/사업체/주택 자동차/건강/메디케어플랜 ☎: 213-388-8055 LA 월서 + 세라노	광고주를 기다립니다.